

두 子女의 죽음에 나타난 다윗의 哀痛연구

김 수 근
< M. Div >

I. 서 론

예수님은 육체에 계셨을 때에 누차(눅 19:41; 요 11:35; 히 5:7; 마 26:37) 슬퍼하셨음을 성경은 밝히 증거한다.

예수님의 애통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전포괄적 성격을 띠었다고 하겠다. 성경은 애통을 적잖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눈물을 띠면서, 필경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시매……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로 결론 짓는다고 해서 크게 정도에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본고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슬픔의 사실들 중, 극히 일부분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특별히 다윗과 밋새바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의 다윗의 애통과,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그의 애통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의 애통에 대한 바른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II. 죽음과 애통의 어의적 고찰

A. 죽음과 애통

파멸의 세력으로써의 죽음의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하여 내려진 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에선 죽음의 힘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는 결코 작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죄가 필연적으로 사망을 낳았으며, 그 사망의 쓰는 것을 주었다. 바울은 이것을 집약하여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 라고 표현했다. 예수님은 출 3:6을 해석하시면

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눅 20:37, 38) 이심을 천명하셨다. “죽음”이란 非在存를 意味하지 않고 저주(회개하지 않은 상태, 곧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자를 뜻한다.

성경은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증거한다. (딤후 6:16) 고로, 죽음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이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神的 共同体에서 끊어지는 것이 다름아닌 죽음이다.

哀痛은 히브리어 “아발”이란 동사에서 살피면, 그 意味는 “슬퍼한다, 애도한다”인데, 호 10:5; 암 8:8에 나타난다. 이것의 Hiphil형은 “애도케 하다, 슬퍼하게 하다”로, 겔 31:15; 애 2:8에 나타난다.

헬리어 “펜테오”라는 동사에서 그 의미는 “슬퍼한다, 근심한다, 애통한다”인데, 마 5:4; 막 16:10; 눅 6:25; 고전 5:2 등에서 발견된다.

이것의 他動詞的 의미는 “~을 슬퍼하다”로 고후 12:21에 mour over로 번역되었다. 이것의 名詞형이 “펜토스”인데, Grief, Sande-ss, Mouring 등으로 영역되며, 계 18:7, 8; 약 4:9; 계 21:4에서 발견된다.

참된 애통은 죽음 후에까지도 영원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십령의 가난”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영혼의 빈곤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애통을 기대하기란 곤란한 것이다.

우리들 畧者는 죽음을 가져오는 罪로 인해 主의 자비를 좇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B. 죽음과 애통과의 관계

히 5:7에서 죽음과 눈물과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예수께서 “죽음 그 자체”를 심히 통곡했다기보다는, 대속자로서의 억만 죄짐에 짓눌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드리고자 하는 애통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수난의 종으로 오신 주”로 예수님을 기술했던 마가는 예수님의 架上七言 中에 유독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을 할애하였다. 이것은 수난의 절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外面당하는 절규로 생각한다.

죽음은 여전히 쓰는 것이고, 아프고 고통스런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대신 죽음까지 체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접하

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죽여버리신 사건이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왕이 예수님 앞에 패배한 것이다. 그렇게 죽지 않던 죽음이 예수님께 와서야 완전히 백기를 든 것이다. 고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음에서 오는 애통은 해제된 것이다.

Ⅲ. 다윗

A. 범죄 이전까지의 그의 생애

다윗은 모든 점에 있어서 위대한 인격자였다. 그는 몹시 나쁜 일도 한 때도 있었으나 동양의 왕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聖君이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 우상 숭배의 세계에서 우상 숭배에 계속 빠지려는 민족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반석과 같이 섰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의 위대한 두 가지 업적은 왕국의 확립과 시편의 창작이었다.

…하락…

B. 범죄 이후의 그의 생애

이 비극의 장(삼하 11장)은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참여했다 라면 절대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의 죄는 두 가지 自然的 性向과 함께 시작됐다. 첫째는 다윗의 性的인 성향이었고, 두번째는 여자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詩人이요, 노래와 악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깊이 보고, 느끼고, 심취되고, 이끌려서 詩와 글로 表現할 수 있었다. 그는 요나단을 吊喪하면서도 “여인의 사랑”을 들먹일 정도였다. 美를 심히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것이 장점이자 동시에 취약점이었다. 마귀는 이 교차점에 덫을 놓았다. 유혹은 죄를 공모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 결과 밧세바는 不法의인 임신술을 하게 되었다. 죄를 은익하려는 노력이 필경에는 殺人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아에게 임신의 책임을 돌리려던 술책은 우리아의 투철한 충성심으로 수포로 돌아 갔다.

우리아를 제거하는 음모가 꾸며졌으며, 다윗은 그의 忠臣을 일단 전사자의 명단에 올리는데 감쪽같이 성공했다. 다윗은 이제 合法的으로 罪惡의 씨가 싹이 트기 前에 서둘러서 밧세바와 결혼했다. 충신을 살해케 한 것을 온 세상은 눈감아 준 것 같았으나, ”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했으니, 신앙의 용장이라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했으니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그 누가…… (딤후 5:24, 25)

1.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 (삼하 12:15~23)

이 아이로 말미암아 무고한 한 젊은이는 敵의 화살의 集中的인 目標物이 된 것이다. 아이가 잉태치만 앓았더라면 우리아의 生命만은 부지했을 것이다. 좋게 봐서 사랑의 씨라고 美化할런지 모르나, 그것은 안목의 정육과 육의 소육을 節制하지 못한 不信仰의 씨인 것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고 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다윗은 아이가 앓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자기의 죄과를 절감한 것이다. 그는 이때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노인들의 권면도 듣지 않고 금식을 계속했다. 그 앞엔 중대한 國事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 여호와께 빌 만한 資格조차 없는 줄 알고 다만 여호와의 긍휼만을 의지하였다. 그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애통하며,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기를 쳐서 회개했다.

2. 삼하 12:23의 주석적 이해

“Lama”로 이끄는 절은 강한 否定을 기대하는 의문문 (interrogation)으로 “어찌하여 禁食하겠느냐?”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니 더 이상 금식할 것이 없다는 다윗의 강한 신념을 나타낸다. 그는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그의 신복들의 질문에 그는 確信에 찬 말로 自身은 죽어서 그의 죽은 아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나, 그 죽은 아들은 결단코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어느 학자는 다윗이 힘을 얻은 것을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順從하기로 한 결단이다. 그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처사였고, 그것은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들째로, 그가 나단을 통하여 입한 하나님의 말씀의 權滅을 얻게 된 同時에 그의 다른 말씀도 믿게 되어서 永生의 所望을 둔 것이다” 고 했다.

3.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압살롬은 솔로몬이 다윗의 王位를 계승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父親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자기 아들의 배반을 받아 도망하는 다윗왕의 모습은 얼마나 애처로운 것인가! 예수님의 겹세마네 동산 사건을 제외하곤 광야에서 유리걸식하며 갓은 고초를 겪을 때의 다윗의 영혼보다 더 숭고한 영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면서 왕궁의 호화스런 생활을 동경하기보다는 지난날의 자기의 죄과를 회오하고 음부에 내려 앉아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심만 의지하고 哀痛罔極했을 것이다. 아들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자, 다윗은 마음 속으로 그를 배반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신하들에게 그 압살롬을 만나거든 제발 죽이지는 말아 주어 너그럽게 대우할 것을 당부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가혹하고 숭고한 마음! 아들이 평안하면 자기가 죽는 전쟁 마당이 아닌가?

압살롬의 형편없는 지휘를 받은 무리들은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빛”으로 굳게 신봉하고 있는 충신들의 노련한 전술의 적수가 되기에는 너무나 나약했기에 유도작전에 말려들어 에브라임 숲에서 밀리게 되었다.

벌써 숲속에서 전사자 2만명 이상을 내었다.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속에서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게 했던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그 자랑스럽던 머리털이 매여 달리자, 나귀는 빠져 나가고 공중에 매여 달리게 되었다. 요압 장군의 세개의 뾰족한 막대기들에 의하여 그는 찢리게 되고 소년 열이 에워싸고 쳐 죽이고 말았다.

4. 삼하 18:33의 주석적 이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은 願望文(Desiderative Sentence)으로써 하나의 바람은 이에 관련된 동사서법(명령형, 간접명령형, 청원법)이나 願望詞 없이도 의문 대명사 “mi”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으므로, 이 節의 해석은 “Would I had died instead of you!”라고 英譯된다. 이 句節에서 “내아들”이란 호격이 最小限 5번 이상이

나온다. 이 얼마나 애절한 부르짖음인가? 짐작컨데 어찌 5번 뿐이리오. 불러도 대답없는 가버린 아들을 수없이 부르면서 大聲痛哭했으리라는 것은 문맥상 自然스럽다. 남들에게 저주스런 이름일런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여전히 “압살롬”(father of peace)으로 남아있는 이 이름들을 먹인 것만도 이 짧은 句節속에 3번이나 나온다. 그러니 여기서 이 두 가지 호격(어떤 곳은 둘이 겹칠지도 모르나)을 빼고 나면, “내가 너를 代身하여 죽었더면”하는 것과 당시 상황을 묘사해주는 상황절 밖에 달리 남는 것이 없다. 실로 슬픔의 극한 상황이다. 이것은 다윗의 애통이 망극한 것을 보여 준다. 땀방울이 변하여 피같이 되신 분이 아니고선 그 누가 다윗의 이 애통을 참으로 이해하겠는가? 성경 어디에 한 이름을 이만큼 기록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땅에서는 그의 애통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다. “다윗의 슬픔은 압살롬이 반역자로서 회개하지 않은 채 영원히 망한 데 대한 것이다. 의인의 죽음에 대한 信者의 슬픔도 있지만 특별히 不義한 자식의 멸망에 대한 그의 슬픔도 자연스럽다”고 어떤 주석가는 설명했다. 그외에 “여기에는 자비보다 공의의 의식이 강하다.” 혹은 “부성애의 발로”로 해석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영혼의 멸망은 침묵한다.

C. 두 죽음에 나타난 다윗의 애통(지면 관계상 생략함)

IV. 성부의 속성과 다윗의 父心과의 연관성(지면 관계상 생략함)

V. 결 론

다윗은 인간으로서 실수도 많았고, 따라서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괴로움도 많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다. 그의 범죄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라도 그 죄를 결코 숨기지 않고 밝힘으로써, 우리를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무서운 죄과는 최대의 죄인이다할찌라도 참된 애통으로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 받지만, 그 죄의 보응은 반드시 받는 진리이다. 두 자녀의 죽음 앞에서 보여 준 그의 애통은 “여호와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며, 여기에 우리 애통의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시 51:1) 그러기에 인자하신 그 분 안에서 참된 위로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밖에서의 애통은 별로 가치가 없다.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윗처럼 애통할 수 있다면, 다윗이 받았던 그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시편들이 누구

의 것이 되게는가? 이제 다음의 글을 의미있게 새기고 마치기로 하자.

“애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 : 4) -이 상-

선원전도전략

- 원양어선 선원을 중심으로 -

원 3년 남 후 수

I. 서 론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이다. 그렇지만 신라의 장보고와 이조의 이순신을 제외하면 별로 바다에 대하여서 내세울 것이 없다. “뱃놈”이라 하여 천시하던 풍조가 그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1960년대 이후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수산과 해운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해운업에서 세계 13위, 수산업에서 세계 7위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여기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외항선원 1만 4천명, 내항선원 5천 1백명, 원양어선원 1만 5천명, 연근해 어선원 3만 2천명, 해외 취업 선원 3만 1천 3백명 등 10만명을 헤아리고 있다.¹

그러나 이들 선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복음의 이방지대에 살고 있다. 세계 선명회의 Edward R. Dayton과 플러세제선교대학원의 C. peter Wagner교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Unreached Peoples'81에는 한국에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써 서울의 아파트 지구의 주민들, 버스 기사들, 영등포 지구의 공단 근로자들, 감옥의 죄수들, 재서독 한국인들, 재일본 한국인들을 지적 하였다.² 그러나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한국의 선원들이다. 선원들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집

1) 부산일보, 1984. 4. 10.

2) Edward R. Dayton & C. peter Wagner. ed., Unreached peoples'81
Elgin Illinois, David C. Cook publishing Co. 1982.